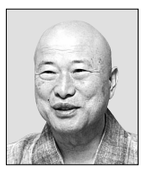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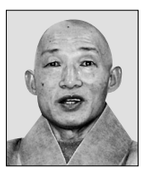
삼각산 산신봉찬대제

성운 서울 삼천사 주지 스님은 11월 15일 경내 산영각서 '제13회 삼각산 산신봉찬대제'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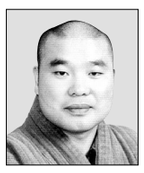
인천시민 힐링 콘서트

종연 미추홀공덕회 이사장 스님은 11월 10일 인천평생학습관 강당서 '인천시민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성역화불사기금 기탁

흥선 김천 직지사 주지 스님은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성역화불사기금 5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김병조 명심보감 특강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11월 16일 오후 7시 해남문화예술회관서 '김병조 교수 명심보감 특강'을 개최한다.



파라미타 20주년 법회

심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스님은 11월 20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혜민 스님 초청법회

명신 광주 연화사 주지 스님은 11월 5일 광주KT 대강당서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저자 혜민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대전사암련 신임회장에 동화 스님

11월 2일 임시총회서 제24대 회장에 추대



대전불교사암연합회는 11월 2일 용문동 대전불교사암연합회관에서 '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보광사 주지 동화 스님〈사진〉을 추대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前 회장 도암 스님을 비롯해 30명의 회원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회장 추대에 이어 연합회 향후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24대 회장에 추대된 동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연합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부정적인 것들은 타파하고 본래의 성스러움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 서로 존경하고 화쟁하면서 단결하고 협력하자. 그래야 지역불교계가 겪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역대 회장님들의 원력을 이어 부족하지만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화엄, 삶의 지침… 쉽게 전할 것"

Interview

퇴임 앞둔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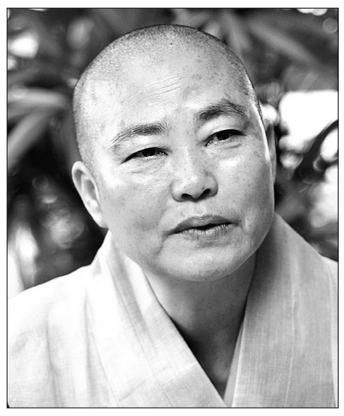
"왔으면 가야하듯이 퇴임은 정해진 것이죠.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년 정년 퇴임을 앞둔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본각 스님〈사진〉은 퇴임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1991년 중앙승가대 교수로 취임한 본각 스님은 화엄학의 대가로 26년 동안 화엄의 정수를 후학들에게 전했다.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중앙승가대 불교학부와 대학원학생회, 총학생회는 11월 7일 본각 스님의 정년퇴임 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다.

본각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법계와 보현 그리고 중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스님이 퇴임 강연 주제로 법계 · 보현 · 중도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화엄경〉의 배울 수 있는 삶의 지침이 '법계 · 보현 · 중도'라는 키워드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법계는 우리 앞에 펼쳐진 무한한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 진리의 세계는 연기로



7일 '법계 · 보현 · 중도' 주제
퇴임강연… 화엄 요체 전해
화엄사상 알릴 대중서 집필

이뤄지죠. 법계를 보기 위해서는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세계를 바로 인식한 뒤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는 것이 '보현행원'입니다. 보현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착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도의 삶을 살아야합니다. 〈화엄경〉은 이런 삶의 방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각 스님은 〈화엄경〉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근원적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가 연기법입니다. 모두가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법계연기를 인식하게 되면 나만 잘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화엄경〉은 보현행원을 제시합니다. '남이 편안해지면 나도 편안하다'는 것이죠. 또한 중도는 극단을 거둬내고 갈등을 완화합니다. 화엄사상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지표를 찾을 수 있어요."

26년동안 화엄학을 가르친 본각 스님의 최종 목표는 화엄사상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퇴임을 앞두고 준비 중인 전문 연구서 집필을 마치면 화엄에 대한 대중 강연과 쉬운 교양서에 저술할 계획이다.

"퇴임하고 금륜사로 돌아가면 대중 강의를 가장 먼저 하려 합니다. 화엄학자로서 교실에서 화엄을 전했다면 이제는 저자거리에서 화엄사상을 전법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엄경〉 지침서도 발간하려 합니다."

화엄학의 대가로 수많은 후학들을 대출한 본각 스님. 스님은 퇴임이라는 출발선에서 '화엄사상의 대중화'라는 새로운 원력을 준비 중이다. 신성민 기자

탈북민 · 티베트청소년에 희망을

금강경독송회, 공익단체에 총 1천만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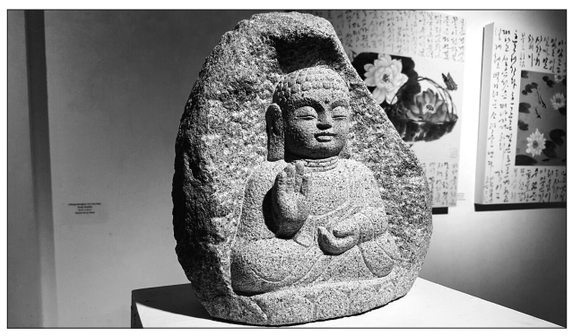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1월 3일(사)좋은벗들에 탈북동포 지원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아울러 (재)아름다운동행에도 티베트 청소년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이 메주, 된장, 참기름, 조청 등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토대로 마련됐다. 김재웅 법사는 "마음을 닦는 사람은 주변을 살피고 배려하고 돕는 자비심을 늘 닦아야 한다"며 "금강경독송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1000만원씩 20년째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는 1973년 설립 후 국내와 미국, 유럽 등 15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사찰과 군법당 등에 금강경 50만권, 불서 170만권을 보시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대학과 도서관 등에 세종대왕과 원효대사, 이순신 장군 등 한국의 위인과 석굴암, 고려대장경, 고려불화 등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책 75만권을 무료 배포하고, 한식, 한복, 전통예절을 알리는 행사를 9000여회 열어왔다. 노덕현 기자



뉴저지에 불교의 美 전하다

태황 스님, 뉴욕한인미술協 전시회 참가



뉴욕한인미술협회가 개최한 정기 전시회에 출품된 태황 스님 작품.

종교인으로서는 최초로 석조각 기능보유자인 태황 스님(부건조각원장)이 불교 조각의 아름다움을 미국에 전했다.

태황 스님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뉴저지 리버사이드 갤러리에서 열린 뉴욕한인미술협회 정기 전시회 '모자이크II'에 참여했다. 협회 회원 30인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화, 조각, 민화, 동양화 등 60여 점의 작품이 대중에게 소개됐다. 태황 스님은 일필휘지로 용을 그려낸 '태황용선경도'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 예정인 석조각 '소녀와 메기', 아미타 여래상 등 6점을 전시했다.

태황 스님은 "불교미술을 통해 젊은 세대가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대에 맞는 불교 조각을 대중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작품은 해외에 지속적으로 전시된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마이애미 시청 별관 갤러리서 전시되며, 내년 2월에는 싱가포르에서도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050)2879-8790 신성민 기자

500여 이주민 한자리서 '화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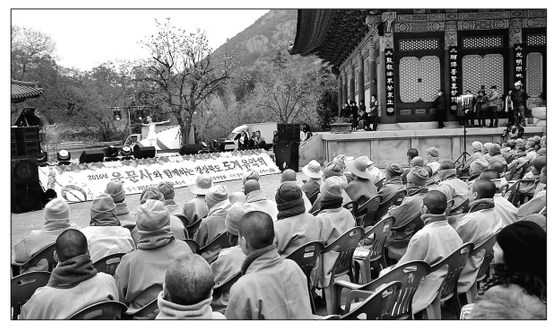
마하이주민협, '2016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호, 이하 마주협)는 11월 6일 동국대 부속고등학교 실내체육관서 2016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베트남 · 네팔 · 미얀마 · 스리랑카 · 캄보디아 · 몽골 · 중국 등 500여 이주민들은 글짓기 시상식,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문화공연 등 함께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박아름 기자

운문사, 은행나무 아래 음악회

11월 6일 6000여명 참석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2016 운문사와 함께하는 경상북도 도계음악회'를 11월 6일 경내 마당서 개최했다. 이 자리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운문승가대학 학장 일진 스님, 주지 진광 스님, 이상진 한국환경음악협회장, 이승율 청도군수, 박권현 정상구 경상북도의원 등 사부대중 관람객 6000여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서울 강남서 통일 노래하다

봉은사, 11월 5일 '강남 통일문화 축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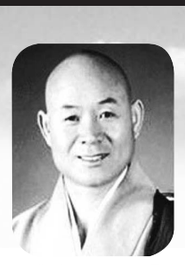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남북이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자는 취지의 '강남 통일 문화축제'를 11월 5일 개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남구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1부 '둘이 하나 되는 통일 Talk'와 2부 '둘이 하나 되는 통일 음악회'로 진행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